광주형일자리 車공장 합작법인 7월 설립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행정절차 마무리

올해 하반기 공장 착공…2021년 하반기 양산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회통합형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사업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이 7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설립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정부 재정투자심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21일 '투자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확정 통보해옴에 따라 광주시가 1대 주주로 간접 출자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37조 2항에 따르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중앙 투자심사(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돼 있으나 면제 통보를 받아 합작법인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행정절차와 법령상 근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광주시는 이달 중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 발기인총회를 거쳐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한 후 당초 계획대로 올 하반기 공장을 착공해 2021년 하반기 양산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투자협약에는 광주시와 현대차, 산업은행, 완성차 협력사, 지역 중견기업 등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투자기업은 10곳 이상, 20개 미만에 이를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민주주 참여는 50인 이상일 경우 자본시장법인법상 절차 등이 복잡해 우선은 2300억원의 출자금으로 진행하고 추후 증자 등이 필요할 때 시민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와 광주형일자리 사업인 자동차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작업에 즉각 착수했다.

우선, 시는 자동차공장 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오랜 기간이 소요돼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해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했고, 지난 3월6일 중앙투자심사 면제 근거가 담긴 균형발전법 개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4월 국회산업건설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2차례 심의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이후 국회 파행으로 통과시점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시는 국회파행의 장기화에 대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23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면제 사업으로 최종 의결됐다. 우회 전략이 적중한 셈이다.

이후 시는 균형발전위 의결을 바탕으로 산업부와 행안부에 중앙심사면제를 요청했고 이번에 산업부와 행안부로부터 '투자심사 면제' 통보를 받게 됐다.

한편 시는 자동차공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과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을 통해 완성차공장 사업에 간접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정관을 개정해 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17일에는 자동차공장 출연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시는 24일 신설법인의 자본금 2300억원의 21%인 483억원을 그린카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는 중앙투자심사 면제, 법령상 근거 마련, 시의회 동의 등 출자 및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필요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법인 설립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시작이자 희망"이라며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합작법인을 곧 설립하고 연내 공장건립에 들어가 2021년 하반기부터 신모델 자동차를 차질없이 양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동구, 정신건강토크쇼 개최

광주 동구가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오는 26일부터 9월까지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정신건강토크쇼 '이 밤의 토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크쇼는 신만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소소한 이야기부터 말 못한 고민까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먼저 오는 26일 고상열 리카르도 천주의성요한수도회 수사가 '어디에 있니?'를 주제로 첫 문을 연다. 7월 24일에는 '어디만큼 왔니?'를 주제로 신상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8월 28일에는 '어떻게 표현할까?'를 주제로 교육인 강원국 씨가, 9월 18일에는 '어디로 가지?'를 주제로 국제정신분석가 양동석 씨가 강사로 나선다.

서구, 마음에 쉼표 민·관 사례관리 워크숍

광주 서구는 20일 장흥 우드랜드에서 민·관사례관리사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례관리 담당자 간 소통과 공유를 촉진하고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것.

이 날 워크숍에는 복지관 등 민간 사례관리사, 의료사례관리사 등 공공영역사례관리사, 동 맞춤형복지팀장 및 팀원 67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2개조로 편성, 치유숲 걷기, 호흡요가 및 아로마 오일 만들기등 그간 지친 사례관리사들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으며, 각 기관, 동별 관리사들이 서로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남구, 주민DJ 운영 펭귄마을 방송국 문 연다

광주 남구는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관광 활성화와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양림동을 홍보할 전문 방송인 양성을 위해 펭귄마을 방송국을 운영하기로 했다.

남구는 21일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에 관광 요소를 확충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정보와 음악, 주민들의 사연을 방송하는 펭귄마을 방송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관내 거주자 가운데 20세 이상 주민과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 DJ 양성 교실을 열기로 했다.

현재 참가자 모집이 진행중이며, 주민 DJ 양성 교육은 7월부터 총 10회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인 북구청장, 2년차 민생현장에서 시작

문인 북구청장이 민선 7기 2년차 업무를 주민과 함께 민생현장에서 시작한다. 23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6월 26일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 150여명을 초청해 '주민이 묻고 구청장이 답하는 주민과의 열린 대화 시간'을 갖는다.

'주민과의 열린 대화'는 △민생현장 방문의 날 △동 자생단체 간담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수강생 간담회 등을 추진했던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앞으로의 구정 발전 방향을 함께 제시해 나가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민선 7기 1주년 당일인 7월 1일 오전은 구청장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로 업무를 시작해 지난 1년간 구정 발전에 기여한 주민과 공무원에게 표창을 하는 '열린 만남의 날' 행사와 효령노인복지타운 및 관내 복지관에서 '배식봉사'를 실시한다.

광산구, 아파트 조식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운영

21일 광주 광산구와 B.K FOOD(주)가 '광산형 아파트 조식 서비스 2차 시범사업' 참가 아파트 주민대표와 구청에서 협약식을 갖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산구의 시범사업은, 구민 아파트 거주 비율 80.2%인 현실을 반영한 '내 삶이 행복한 광산' 시책의 하나로, 시민에게 여유로운 아침시간과 건강한 아침밥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지난해 참가한 첨단·운남·월곡·수완·하남동의 8개 아파트에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3개 아파트가 더 참가한다.

임형택 기자

김삼호 광산구청장, 강연으로 소통

"광산형 경제모델, 지역혁신으로 '행복광산' 만들 터"

21일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국가·지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오피니언리더들의 견해를 듣는, (사)21세기남도포럼(공동대표 오수열·임채완 등)의 제214회 정례포럼 강사로 초청받아 '민선7기 지역혁신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서구 리페스타 연회장에서 포럼 회원과 광주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강연에서 김 청장은, "경제가 살아야 일자리도 늘고, 품위 있는 복지와 자치가 가능하다"며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유치, 기업지원 전담부서 신설, 다양한 경제 주체 활력 기반 조성 등이 골자인 '광산형 경제모델'에 대해 발표했다.

안전광산프로젝트 실시, 광산통일열차 운행, 협업프로젝트 추진 등 민선 7기 굵직한 광산구정을 알리며, "지역혁신을 통한 행복광산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강연 이틀 전인 20일 김 청장은,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초대로, 예비사회인으로 활동할 훈련생들에게 '직업의식 고취'를 주제로 '향후 직업·산업의 변화' '광산구의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해 발표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임형택 기자

도로公 광주전남, 백양사 수소충전소 개장식

고속도로 미세먼지 저감·친환경차량 인프라 구축…연중무휴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학구)는 고속도로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량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1일 백양사(천안방향) 수소충전소 개장식을 갖고 영업을 개시했다.

백양사(천안방향) 수소충전소는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개장 당일은 오후 2시부터 충전이 가능하다.

전국 고속도로 수소충전소는 지난 4월 경부선 안성휴게소(양방향), 영동선 여주휴게소(강릉방향) 3곳에 최초 개장한 바 있으며, 6월에는 호남선 백양사휴게소(천안방향), 중부내륙선 성주휴게소(양평방향), 경부선 언양휴게소(서울방향) 3곳이 개장되며, 7월말에는 남해선 함안휴게소(부산방향), 8월말에는 중부선 하남드림휴게소에 추가로 개장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는 수소차 1대당 5분 이내에 완전충전(현대차 넥쏘 기준 600km 주행 가능)이 가능해, 전기차와 비교 시 충전시간이 ?에 불과하다.

수소 충전요금은 모든 고속도로 충전소에서 킬로그램(kg) 당 8천원대로, 업체에서 공급받는 가격 그대로 고객에게 마진 없이 판매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수소차량 운행자의 많은 충전소 이용을 당부드린다"며, "정부 친환경 정책에 동참하기 위한 고속도로 수소차 충전소 운영이 수소차량 저변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신안·나주·해남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법인설립 ■기장대리
■양도상속증여 ■건설면허신청
■기업진단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량>>토목설계>>도시계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